

제일모직, 화학 연구개발 경력자 모집

삼성 계열사 잇따라 경력사원 모집 ... 삼성엔지니어링도 채용 진행중

삼성 계열사들이 잇따라 경력사원 채용에 나서 주목된다.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테크윈,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등이 7월부터 경력사원 채용절차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총괄에서 D램, S램, 플래시메모리 설계 등 연구개발과 반도체 마케팅·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사원 채용에 들어가고, 디지털미디어총괄에서는 디지털TV 연구개발 부문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지원자격은 경력 4년 이상의 학사, 경력 2년 이상의 석사,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다.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총괄과 정보통신총괄에서 반도체와 통신관련 전공의 박사과정 수료 또는 수료 예정인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입사를 전제로 학비 등을 지원하는 박사대여 장학생을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일모직은 8월16일까지 화학분야의 연구개발 관련 경력사원을 모집하며, 삼성SDI는 회로기술, 영상개발, 패넌개발 부문 등에서 연말까지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삼성테크윈은 무선통신회로, 이미지센서회로, 기구 설계 등 개발부문과 기술지원부문에서 경력사원 채용을 위한 지원을 받았고, 삼성엔지니어링도 경력사원 모집 서류전형을 마치고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8/11>